



박 숙 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2009년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08년도 합계출산율은 작년의 1.25명보다 감소한 1.19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인 건수는 32만7천7백건으로 전년보다 1만5천8백건이나 감소했으며, 결혼연령 또한 남녀 모두 10년 전에 비해 2.5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혼인과 출산은 더욱 감소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15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자녀수도 6만여명에 달한다. 다문화 가족은 자녀양육, 이웃과의 소통 등에서 어려움이 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빠른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이 되는 것은 가족원들간의 사랑과 의

지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가족정책의 목표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방향은 크게 가족기능 강화, 미래 지향적인 인적투자 확대,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성, 접근성 제고,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이다.

첫째,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가족의 돌봄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웃간에 상부상조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품앗이 육아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야간·주말 근무, 출장, 질환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양질의 시간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작년까지는 65개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으나 금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고지원 예산도 55억원에서 156억원으

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7천여개 창출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또한 동네 품앗이, 이웃사촌 맺기 등과 같은 지역단위 가족들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공동체적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성을 최대화하면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투자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특히 자녀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결혼이민자를 통번역요원으로 양성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자녀의 한국어 및 엄마나라말 사용을 활성화하고 언어발달 교육을 내실화하여 장애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출예산도 증액하였다.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적자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국 92개소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형성 유지,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센터에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 모두

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다기능화는 가용자원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다문화가족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6월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성하여야 할 과제와 직장에서의 근무환경을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 마을 단위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은 일부 지역민들이 운동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사례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조모임' '품앗이'와 같은 작은 규모의 community 구축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작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가족친화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족친화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자 한다.

올해는 그 어느때 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힘이 더욱 요구된다. 이웃의 작은 배려와 격려, 함께하는 희망 나눔이 어느 때 보다 소중한 한해가 될 것이다. 